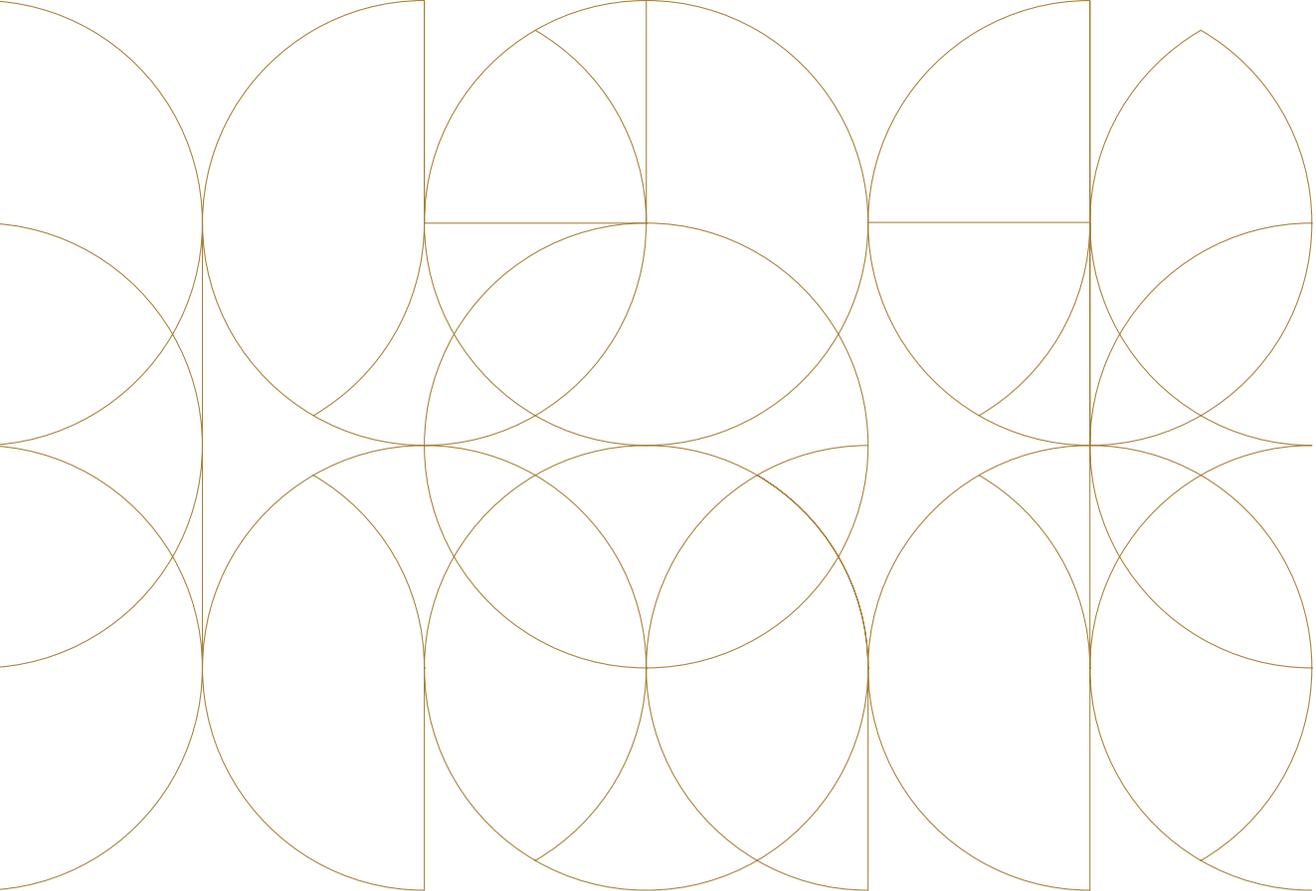


KBS S.O. 823rd

2026.2.28. 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A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T 02-6099-7400
F 02-6099-7416
K www.kbssymphony.org

f facebook.com/kbssymphony
+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 kbssymphonyorchestra
▶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

Program

라흐마니노프
S. Rachmaninoff

죽음의 섬, 작품 29
The Isle of the Dead, Op. 29

⓪ 20'

인터미션

Intermission

⓪ 15'

쇼스타코비치
D. Shostakovich

교향곡 제13번 b♭단조, 작품 113 '바비 야르'
Symphony No.13 in b-flat minor, Op. 113 'Babi Yar'

⓪ 60'

베이스 그리고리 슈카루파
Bass Grigory Shkarupa

I. Babi Yar: Adagio
바비 야르: 느리게

성남시립합창단
Seongnam City Chorus

II. Humour: Allegretto
유머: 약간 빠르게

용인시립합창단
Yong-In City Choir

III. At the Store: Adagio
상점에서: 느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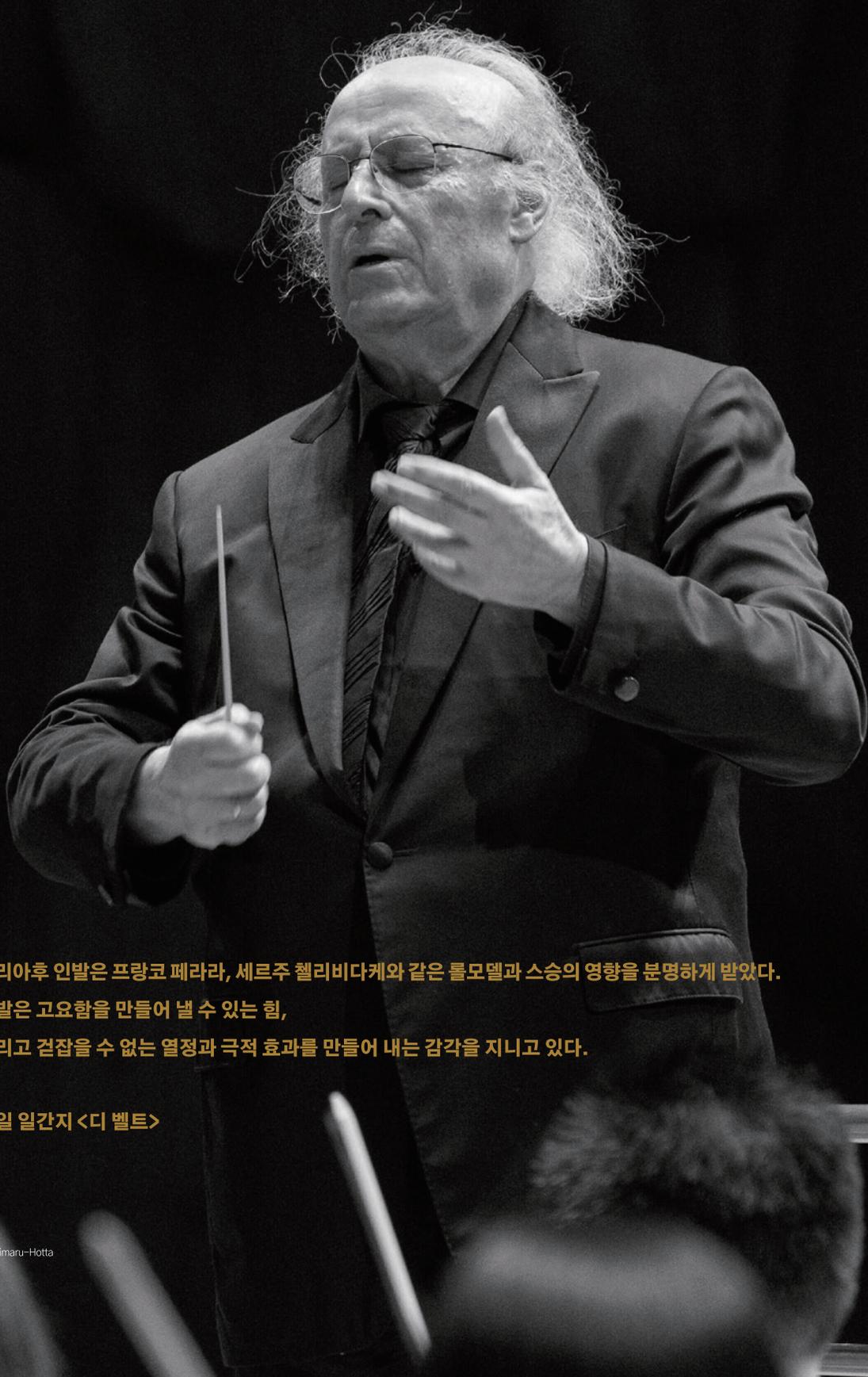
IV. Fears: Largo
공포들: 매우 느린 속도로

V. Career: Allegretto
출세: 약간 빠르게

※ 총 소요시간: 105분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아후 인발은 프랑코 페라라, 세르주 첼리비다케와 같은 롤모델과 스승의 영향을 분명하게 받았다.

**인발은 고요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견잡을 수 없는 열정과 극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감각을 지니고 있다.**

”

독일 일간지 <디 벨트>

지휘 엘리아후 인발

엘리아후 인발은 26세의 나이로 귀도 칸텔리 지휘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 전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그는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베니스 라 페니체 극장 오케스트라, RAI 국립 교향악단,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체코 필하모닉,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역임했으며,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는 2014년 명예지휘자로 위촉되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타이베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지냈고, 2023년에는 명예지휘자로 추대되었다.

엘리아후 인발은 1974년부터 1990년까지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음악 감독을 맡으며(현재도 명예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뛰어난 음악성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취리히 인근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출신 지휘자 인발은 말러와 브루크너 해석으로 국제적 찬사를 받았으며, 독일 레코드상과 프랑스 레코드 그랑프리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브루크너 교향곡 오리지널 버전을 최초로 녹음했으며, 특히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해석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2025/26 시즌, 엘리아후 인발은 자신의 90세 생일을 기념하며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말러의 〈교향곡 제8번〉을, KBS교향악단과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13번 ‘바비 야르’〉를 연주한다. 또한 타이베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안트베르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도 예정되어 있다.

최근 몇 년간 그는 일본과 스페인 투어를 비롯해 몬테카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마지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극장, 린츠 브루크너 페스티벌(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지휘), 남서독일 방송 교향악단,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등과 연주했다. 또한 파리, 글린드본, 뮌헨, 슈투트가르트, 취리히, 마드리드 등 주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지휘자로 활약했으며, 2013년 라코루냐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 블람세 오페라에서 〈파르지팔〉을 지휘해 호평을 받았다. 이 중 〈파르지팔〉은 2014년 국제 오페라상을 수상했으며, RAI 국립 교향악단과의 바그너 〈반지〉 사이클로 이탈리아 국립 음악비평가상 ‘아비아티와 비오티상’을 수상했다.

엘리아후 인발은 베를리오즈에서 브람스, 브루크너, 말러, 라벨, 슈만, 쇼스타코비치, 스크리아빈, 스트라빈스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제2빈악파에 이르는 방대한 레퍼토리의 교향곡 전곡을 포함한 디스코그래피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관현악단, 빈 교향악단, 런던 필하모닉, 스위스 로망드 관현악단, 체코 필하모닉과 함께 다수의 음반을 녹음했으며,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와 연주한 말러 교향곡 제10번(데릭 쿡 버전)은 DVD로 출시되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엘리아후 인발은 예루살렘 음악원에서 바이올린과 작곡을 공부했고, 레너드 번스타인의 추천으로 파리 국립 고등 음악원에서 수학했다. 그는 루이 푸레스티에, 올리비에 메시앙, 나디아 불랑제를 사사했으며, 네덜란드 힐베르섬에서 프랑코 페라라에게,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세르주 첼리비다케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199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예행정가’ 훈장을 받았고, 2001년 빈 시 황금훈장, 2006년 프랑크푸르트 시 괴테 명예훈장과 독일 공로훈장을 수훈했다.

CONDUCTOR ELIAHU INBAL



베이스 그리고리 슈카루파

그리고리 슈카루파는 최근 <마술피리>의 자라스트로, <탄호이저>의 란트그라프, <로엔그린>의 하인리히 왕, <리골레토>의 스파라푸칠레, <일 트로바토레>의 페란도, <세비야의 이발사>의 바질리오, <사랑의 묘약>의 돌카마라, <라 보엠>의 콜리네, <투란도트>의 티무르 등 주역 베이스 역할을 맡으며 그가 201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앙상블 멤버로 활동했던 베를린 국립오페라단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오페라극장에서 정기적인 객원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리 슈카루파는 2020년 11월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을 통해 이탈리아 무대에 데뷔하여 평단의 찬사를 받았으며, 이후 제노바 카를로 펠리체 극장과 2023년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에 연이어 초청되었다. 그리고리는 브레겐츠 페스티벌에서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의 돈 알폰소 역으로 노래하였다.

1989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그는 2007년 글린카 합창음악학교를 졸업한 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에서 오페라 성악과 합창 지휘를 함께 전공하였다.

그는 다양한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19세의 나이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 데뷔했다. 슈카루파는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의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과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했다.

슈카루파는 다니엘 바렌보임, 주빈 메타, 시몬 영, 마리스 안손스, 안토니오 파파노, 니콜라 루이조티, 아이버 볼튼,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 파올로 아리바베니, 마시모 자네티, 발레리 게르기예프, 유리 테미르카노프, 지아난 드레아 노세다, 엘리야후 인발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협업해왔다.

BASS GRIGORY SHKARUPA

성남시립합창단 Seongnam City Chorus



성남시립합창단은 전문합창단 활성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1986년 수도권 최초의 시립 전문합창단(시·도 및 광역시 제외)으로 창단되어, 40년의 깊은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합창단이다. 152회의 정기 연주회와 1,800여 회에 이르는 국내·외 연주 활동을 통해 한국 합창문화의 지평을 넓혀 왔으며, 성남시를 명실상 부한 '합창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성남시립합창단은 끊임없는 창의적 기획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실험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무대를 통해 합창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클래식적 깊이와 현대적 감각을 아우르는 무대는 합창을 사랑하는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뜨거운 울림을 선사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전통 위에 혁신을 더하며 합창의 역사와 감동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는 성남시립합창단은,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전문합창단으로서 한국 합창문화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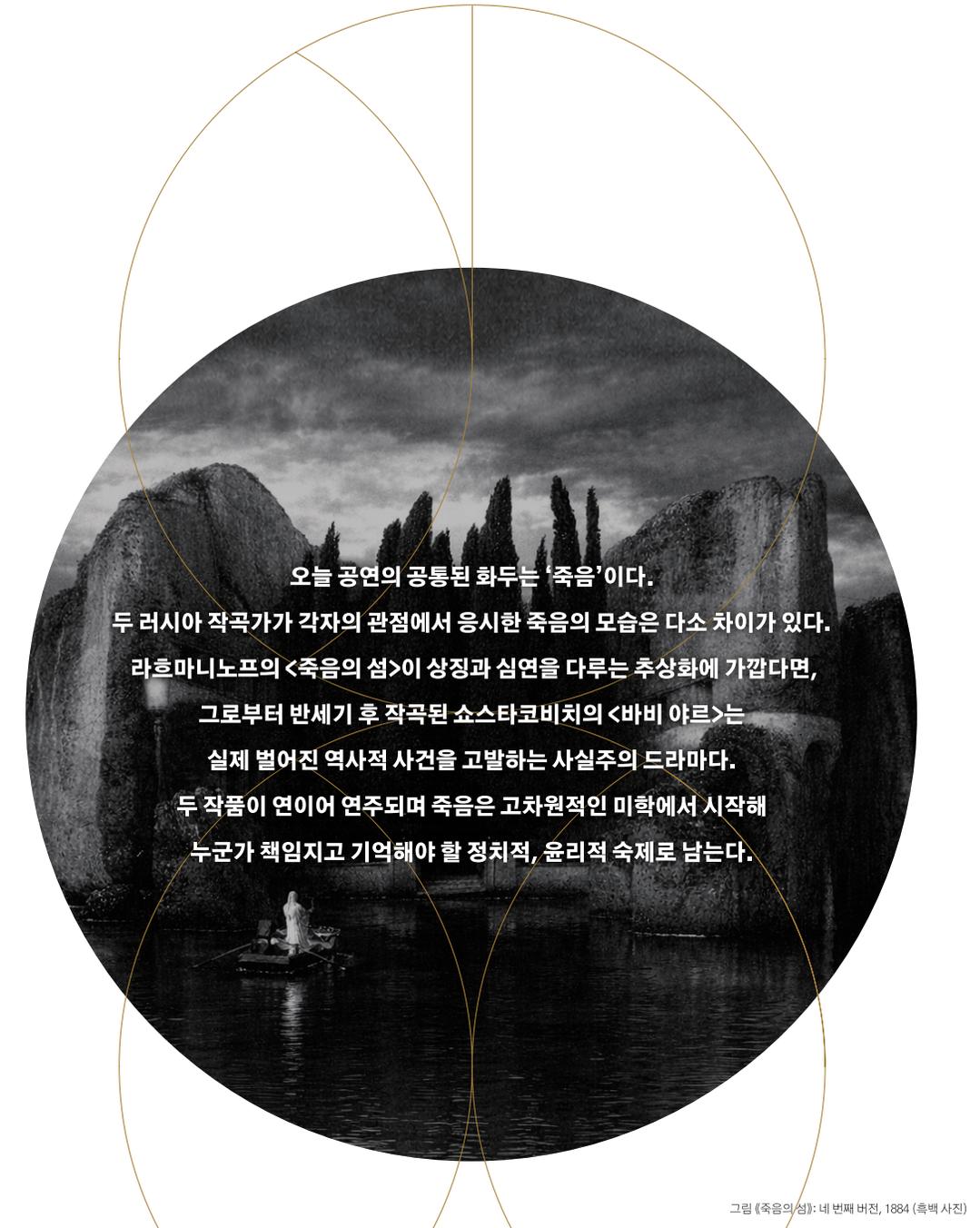
용인시립합창단 Yong-In City Choir



상임지휘자 조지웅

용인시립합창단은 용인시 인구 100만 대도시 달성을 기념하여 100만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대 확대와 용인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2017년 9월 창단되었다. 용인 시민을 위한 축제의 장인 제22회 용인 시민의날과 제3회 용인 축제거리에서 화려한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기획 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용인시 각종 행사 등 다양한 무대와 공연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러시아 국립 볼쇼이 합창단과의 성공적인 합연을 통해 용인시를 대표하는 문화 예술 전문 단체로서 용인의 문화예술위상을 높인 바 있다.

또한 용인시립합창단은 정통 클래식, 한국 가곡, 트로트, 대중가요, 뮤지컬 현대음악 등 다채로운 장르와 음악적 레퍼토리를 구성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뿐 아니라, 매년 용인시립합창단만의 창작곡을 통해 관객들에게 차별화된 합창 음악을 아름답게 선사하고 있다.



오늘 공연의 공통된 화두는 '죽음'이다.
 두 러시아 작곡가가 각자의 관점에서 응시한 죽음의 모습은 다소 차이가 있다.
 라흐마니노프의 <죽음의 섬>이 상징과 심연을 다루는 추상화에 가깝다면,
 그로부터 반세기 후 작곡된 쇼스타코비치의 <바비 야르>는
 실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고발하는 사실주의 드라마다.
 두 작품이 연이어 연주되며 죽음은 고차원적인 미학에서 시작해
 누군가 책임지고 기억해야 할 정치적, 윤리적 숙제로 남는다.

그림 <죽음의 섬>: 네 번째 버전, 1884 (홍백 사진)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라흐마니노프 / <죽음의 섬>, 작품 29

S. Rachmaninoff / The Isle of the Dead, Op. 29

작곡	1908년~1909년
초연	1909년 4월 18일, 러시아 모스크바
편성	플루트3(피콜로를 겸함), 오보에2, 잉글리시호른, 클라리넷2, 베이스클라리넷, 바순2, 콘트라바순, 호른6, 트럼펫3, 트롬본2, 베이스트롬본, 튜바, 팀파니, 큰북, 심벌즈, 하프, 현5부
연주시간	약 20분

물 위로 각진 바위 절벽이 반원을 그리며 우뚝 서 있다. 그 가운데는 어두운 삼나무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뒤로는 불길한 구름이, 앞에는 사공이 노를 젓는 배 한 척이 떠 있다. 배 위에는 흰 천에 덮힌 관과 마찬가지로 흰 옷을 입은 신비로운 인물이 외롭게 서 있다. 스위스 상징주의 화가 아르놀트 뵘클린(Arnold Böcklin)이 그린 <죽음의 섬>의 이미지다. ‘섬 위의 묘지’라는 주제는 당대 여러 화가들이 다룬 낭만주의 사조의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였다. 그중에서도 뵘클린의 그림은 가정마다 복제화를 걸어둘 정도로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1907년 라흐마니노프가 파리에서 접한 작품도 흑백의 복제판이었지만, 그 불완전성이 작곡가의 상상력을 자극한 듯싶다. (훗날 라이프치히에서 원화를 접한 그는 실망하며 “이 그림을 먼저 봤다면 그런 음악을 작곡하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곡을 작곡하던 시기 라흐마니노프는 충분히 행복했다. 피아니스트로서 국내외에서 성공가도를 달렸고, 둘째 딸도 태어났다. 이 모든 축복 속에서도 ‘우울’은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된 정서였고, 이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음악은 하프와 저음 현들이 연주하는 부드럽고 모호한 분위기로 시작된다. 5/8박자의 흔들리는 리듬 속에 불규칙하게 흐르는 음악은 저음의 뱃사공이 노를 젓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뚜렷한 선율이나 주제 없이 음악은 다만 심연으로 파고들 뿐이다. 출렁이는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이 간간히 비치기도 한다. 울창한 호른, 구슬픈 오보에, 아련한 고음 현악기들의 노래 사이로 밝은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스친다. 하지만 라흐마니노프 본인이 ‘생명의 동기(Life motiv)’라 부른 이 선율들은 냉혹하게 전진하는 오케스트라가 망치처럼 내리치는 타격에 무너지고 무력하게 사라진다.

이후 클라리넷 독주가 이끄는 섬세한 악절이 이어지며 여기서 라흐마니노프가 즐겨 사용했던 중세 미사곡 ‘진노의 날(Dies Irae)’ 선율이 3성 카논처럼 차례로 겹쳐서 연주된다. 바이올린과 오보에, 클라리넷의 짧은 독주가 끝나면 음악은 서서히 어둠이 내리는 초저녁처럼 이전 분위기로 돌아간다. ‘진노의 날’ 선율은 그 존재감을 한층 뚜렷하게 드러내며, 종국에는 저음 깊숙이 자신의 마지막 흔적을 남긴다. 음악은 생의 종결을 암시하며 초월적 체념 속에 조용히 끝난다.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13번 bb단조, 작품 113 <바비 야르>

D. Shostakovich / Symphony No.13 in b-flat minor, Op. 113 <Babi Yar>

작곡	1961년
초연	1962년 12월 18일,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대강당
편성	플루트2, 피콜로, 오보에3(잉글리시호른을 겸함), 클라리넷3(피콜로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을 겸함), 바순3(콘트라바순을 겸함), 호른4, 트럼펫3, 트롬본2, 베이스트롬본, 팀파니, 심벌즈, 힙, 작은북, 큰북, 탬버린, 캐스터네츠, 우드블록, 트라이앵글, 탐탐, 실로폰, 차임벨, 키보드글로켄슈필, 하프2, 피아노, 첼레스타, 현5부
연주시간	약 60분

‘바비 야르(Бабий Я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협곡의 러시아식 이름이다. 제2차 대전 중 이곳을 침공한 독일 나치군은 1941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단 이틀 사이에 3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했다. 독일군이 자행한 유대인 학살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이었지만 소련은 이 지역을 탈환한 이후에도 ‘유대인 학살’이 아닌 ‘소련인들의 희생’으로 뭉뚱그려 서술하며 구체적 기억을 억압했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1961년 러시아 시인 예프게니 예프투센코는 <바비 야르>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하며 억압된 기억을 수면 위로 올리고 정부의 침묵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바비 야르에는 아무 비석도 없다”는 구절로 시작되는 이 시는 유대인 박해의 역사를 고발하며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반복해서 선언한다.

예프투센코의 시를 읽은 쇼스타코비치는—본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강렬한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이 시를 토대로 교향곡 13번 작곡에 착수했다. 시 <바비 야르>는 1악장 텍스트로 삼고, 나머지 네 악장 역시 예프투센코의 다른 시들을 가사로 차용해 총 5악장의 교향곡을 완성했다. ‘교향곡’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음악을 주도하는 것은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 즉 베이스 독창과 남성 합창이다. 쇼스타코비치는 원작 시에 기반한 가사 전달을 최우선에 두어 언어의 억양과 리듬에 밀착된 선율을 썼다. 대부분 단성으로 이루어진 합창은 때로는 사건을 증언하는 집단의 목소리로, 때로는 실제 장면 속 인물의 대사처럼 생생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역할은 고대 그리스 비극의 합창과 유사하다.

제1악장 ‘바비 야르’는 깊은 저음과 무겁게 누른 화성으로 시작된다. 합창은 “바비 야르에는 아무 비석이 없다.”라고 노래하며 역사적 장소와 그를 둘러싼 망각의 폭력을 지적한다. ‘바비 야르’ 사건 말고도 역대 유대인 학살 사건이 시공간을 초월해 차례로 언급된다. 그중에는 유대인 장교에게 부당한 간첩죄를 씌웠던 드레퓌스 사건, 폴란드 비아워스토크에서 벌어진 유대인 학살, 우리가 잘 아는 안네 프랑크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들을 소환하며 음악은 인류 역사에서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자행되었는지 고발한다. 작곡가는 가사를 최대한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리듬과 음형을 단순하게 유지하면서 불협화음과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오케스트라의 지원 사격 속에 노래가 애타게 증언하는 ‘죽음’은 더 이상 형이상학적인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이름과 얼굴을 가진 희생자의 죽음이며, 기억되지 못한 죽음이고,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죽음이다.

이후 이어지는 악장들은 ‘바비 야르’를 둘러싼 세계로 확장된다. ‘유머’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제2악장**에서 성악은 ‘세계를 지배하던 차르도, 왕도, 황제도 유머만은 다스릴 수 없었다’고 노래한다. 폭압적인 권력조차 끝내 꺾을 수 없던 ‘유머’의 생명력을 풍자와 역설의 어조로 들려준다. 서로의 소리를 강렬하게 주고받는 오케스트라의 추임새는 흡사 서커스 행진곡같다.

제3악장 ‘상점에서’는 생필품이 부족해 가게 앞에서 추위를 참으며 차례를 기다리는 여성들의 곳곳함을 다룬다.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문을 열면 비올라가 그 위에서 흔들거리는 대선율을 연주하고, 베이스 독창과 합창이 ‘계산대 앞에 줄을 서며 온몸은 얼어붙고’라고 노래하기 시작한다. 결핍과 피로에 시달리고, 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며 폭리를 취하는 악덕 상인에 분노하면서도 가정을 지탱하는 여성들은 거대한 역사적 서사에 가려진 말 없는 영웅들이다.

제4악장 ‘공포들’은 스탈린 체제가 남긴 공포의 기억을 묵직하게 떠올린다. 저음 악기들이 무겁고 나지막하게 길을 트면 탐탐과 팀파니, 베이스드럼이 약하게 리듬을 새기며 합류한다. 으스스하고 불안정한 화성 속에 들려오는 ‘공포는 러시아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가사는 당연히 반어법으로, 스탈린 체제의 잔재와 자기검열, 내면화된 공포를 의미한다.

마지막 **제5악장 ‘출세’**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된다. 어두운 정서가 걷히고 플루트 듀오가 B플랫 장조로 밝은 선율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이어지는 독창과 합창은 종교재판까지 받았던 갈릴레이가 사후 추앙받는 사례를 언급한다. 음악은 관료주의와 기회주의를 조롱하는 한편 성실하고 정직한 노동을 통렬하게 찬양하며 인간적 양심에 대한 호소로 마무리한다.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 교향곡의 초연은 쉽지 않았다. 당초 지휘를 맡기로 했던 쇼스타코비치의 절친 지휘자 트라빈스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연주를 포기했고,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섭외도 쉽지 않았다. 간신히 초연된 후에는 반유대주의를 비판하고 소련의 책임을 암시하는 제1악장에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작가에게 시를 일부 수정하라고 강요했다. 그럼에도 당시 대중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고,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은 원전 그대로 남을 수 있었다. 그 결과, 구소련 체제 시절로서는 매우 드물게 공개적으로 양심과 기억,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한 예술적 증언으로 오늘날까지 강렬한 울림을 전한다.

글 | 노승림 (음악 칼럼니스트)

바비 야르 가사

1. БАБИЙ ЯР – 바비 야르

[(남성)합창]
 Над Бабьим Яром памятников нет. 바비 야르에는 아무 비석이 없어.
 Крутой обрыв, как грубое надгробье. 거친 모비처럼 가파른 절벽뿐.
 Мне страшно. 나는 두렵다네.
 Мне сегодня столько лет, 지금 내 나이는
 как самому ев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유대인의 역사와 같아.

[(베이스)솔로]
 Мне кажется, сейчас – я иудей: 지금 나는 유대인이 된 것 같다네.
 вот я бреду по древнему Египту, 고대 이집트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다,
 а вот я, на кресте распятый, гибну,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니,
 и до сих пор на мне – следы гвоздей. 지금도 내 몸에 못 자국이 남아 있어.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Дрейфус – это я. 내가 바로 드레퓌스인 것만 같아.
 Мещанство – мой доносчик и судья! 소시민은 나의 밀고자이자
 재판관이라네.

Я за решёткой, 나는 창살 안에 갇히고,
 я попал в кольцо, 포위되며,
 затравленный, 사냥꾼에게 포획되어,
 ослепленный, 모욕당하며,
 обоганный. 중상모략을 당한 채로.
 И дамочки с брюссельскими оборками, 브뤼셀식 주름 장식이 달린
 옷을 입은 부인들이
 визжа, зонтами тычут мне в лицо. 새된 소리를 내며 우산으로
 내 얼굴을 찌르다네.
 Мне кажется, я мальчик в Белостоке. 나는 비아위스토크의 유대인
 소년이 된 것 같아.

[합창]
 Кровь льётся, растекаясь по полам. 피가 옷자락을 따라 흘러내린다네.
 Бесчинствуют воджи тракторной стойки 여인숙 주인들이 횡포를 부리고,
 и пахнут водкой с луком пополам. 양파와 보드카 냄새를 풍긴다네.

[솔로]
 Я, сапогом отброшенный, бессильный. 내가 무력하게 부츠로 밟길질 당할 때
 напрасно я погромщиков молю. 학살자들에게 자비를 빌어보아도
 소용이 없구나.

[합창]
 Под гогол:
 «Бей жидов! Спасай Россию!» “유대인들을 때려라, 러시아를 구하라!”
 лабазник избивает мать мою. 부유한 상인이 나의 어머니를 구타한다.

[솔로]
 О, русский мой народ, 오, 나의 민족, 러시아인이여!

я знаю, ты 나는 네가
 по сущности интернационален, 본질적으로 다민족임을 알지만,
 но часто те, чьи руки нечисты, 종종 손이 더러운 자들이
 твоим чистейшим именем бряцали. 너의 순결한 이름에 피를 묻혔노라.
 Я знаю доброту моей земли. 나는 내 땅의 선함을 안다네.
 Как подло, что, и жилочкой не дрогнув,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뻘뻘하게,
 антисемиты нарекли себя– 반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을 이렇게 불렀다네.

[솔로, 합창]
 «Союзом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러시아 민족 연합”이라고!

[솔로]
 Мне кажется, 내 생각에
 я – это Анна Франк, 내가 안네 프랑크인 것 같아,
 прозрачная, 창백한 피부에,
 как веточка в апреле, 4월의 어린 나뭇가지 같아.
 И я люблю. 또한 내가 사랑하고.
 И мне не надо фраз, 우리는 속삭이며,
 но надо, чтоб друг в друга мы смотрели. 서로의 얼굴을 봤다네.
 Как мало можно видеть, обонять! 우리의 시각과 후각에 허락된 것이
 이토록 적다니!
 Нельзя нам листьев 우리는 나뭇잎도,
 и нельзя нам неба, 하늘도 볼 수 없어,
 но можно очень много –это нежно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друг друга в тёмной комнате обнять.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를
 부드럽게 포옹하는 것이라네.

[합창]
 «Сюда идут!» “사람들이 이리로 와요!”

[솔로]
 Не бойся – это гулы 두려워 말아요. 발소리가 아니라요.
 самой весны. 이것은 봄의 소리라요.
 Она сюда идёт. 봄이 오는 소리라요.
 Иди ко мне, 내게 오세요.
 дай мне скорее губы! 어서 속히 당신 입술을 쥐요!

[합창]
 «Ломают дверь!»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요!”

[솔로]
 «Нет! Это ледоход!» 아니, 그것은 강을 덮은 얼음이 녹아서
 움직이는 소리라요!

[합창]
 Над Бабьим Яром шелест диких трав, 바비 야르 위로 들쭉의

деревья смотрят грозно,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리며,
по-судейски.
무섭게 노려보는 나무들 있어,
Здесь молча всё кричит,
재판관처럼.
소리 없는 비명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и, шапку сняв,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면,
я чувствую,
느껴진다네,
как медленно седею.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천천히 하얗게 세는지.

[솔로]
И сам я,
나 또한
Как сплошной беззвучный крик,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 없는 비명처럼
над тысячами тысяч погребённых.
땅속에 묻힌 수많은 사람 위에서
Я каждый здесь расстрелянный старик,
총살당하여 이곳에 묻힌 노인이며,
я каждый здесь расстрелянный ребёнок.
총살당하여 이곳에 묻힌
어린이가 되어.
Ничто во мне про это не забудет!
내 몸에 새겨진 이 일을 잊지 않으리!

[합창]
«Интернационал» пусть прогремит,
국가 “인터네셔널”이 울려 퍼지리.
когда навеки похоронен
будет
영원히 묻히게 될 때
последний на земле антисемит.
이 땅의 마지막 반유대주의자가.

[솔로]
Еврейской крови нет в крови моей.
내 핏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없어.
но ненавистен злобой заскорузлой.
하지만 나는 증오한다네.
я всем антисемитам, как еврей,
모든 반유대주의자 앞에서 유대인이 되어,

[솔로, 합창]
и потому – я настоящий русский!
진정한 러시아인이 되리라!

2. ЮМОР – 유머

[솔로]
Цари, короли, императоры,
차르들, 왕들, 황제들
властители всей земли
이 땅의 모든 권력자가
командовали парадами,
퍼레이드를 지휘할 수는 있었지만,
но юмором;но юмором – не могли.
유머를 통제할 수는 없었다네.
Не могли.
없었다네.

[합창]
...ли.
...없었다네.

[솔로]
Не могли.
없었다네.

[합창]
...ли.
... 없었다네.

[솔로]
В дворцы именитых особ,
지체 높은 자들의 궁전들에,
все дни возлежащих выхоленно,
하루 종일 신하들의 보살핌을 받
являлся бродяга Эзоп,
반쯤 누워있는 이들에게
и нищими они выглядели.
부랑아 이슴이 찾아와,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네.

[합창]
Являлся бродяга Эзоп,
부랑아 이슴이 찾아와,
и инщими они выглядели.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네.

[솔로]
В домах, где ханжа наследил
위선자가 집을 더럽혔다네.
своими ногами щуплыми,
비쩍 마른 자기 발로.
всю пошлость Ходжа Насреддин
호자 나스레딘은 모든 저속함을
сшибал, как шахматы, шутками.
체스를 두듯 조소했다네.

[합창]
Всю пошлость Ходжа Насреддин
сшибал, как шахматы, шутками.
호자 나스레딘은 모든 저속함을
체스를 두듯 조소했다네.

[솔로]
Хотели юмор купить –
유머를 매수하려는 자들이 있었지만,

[합창]
Да только его не купишь!
어림도 없는 일!

[솔로]
Хотели юмор убить,
유머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지만,

[합창]
а юмор показывал кукиш!
유머는 주먹을 만들어 엄지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곤 흔들었지!

[솔로]
Бороться с ним дело трудное.
유머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네.
Казнили его без конца.
유머는 수없이 처형당하고도 다시 일어나.

[합창]
Его голова отрубленная
잘려 나간 유머의 머리가
торчала на пике стрельца.
궁수의 활 끝에 매달려 있었다네.

[솔로]
Но лишь скоморошья дудочки
하지만 광대의 피리들은
свой начинали сказ,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고,
он звонко кричал:
유머는 큰 소리로 소리질러.
«Я туточки!»
“나 여기 있다!”

[합창]
«Я туточки!»
“나 여기 있다!”

[솔로]
Я туточки!
나 여기 있다!

[솔로, 합창]
И лихо пускался в пляс.
그리고 신나게 춤췄다네.

[솔로]
В потрёпанном куцем пальтишке,
낡고 짝은 외투를 걸치고
понурысь и словно каюсь ,
잘못을 뉘우치듯 고개를 푹 숙인채
преступником политическим
정치범처럼
он, пойманный, шёл на казнь.
포획된 유머는 사형장으로 향했다네.
Всем видом покорность выказывал:
온몸으로 순종을 보여주며
готов к неземному житью,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된 듯 보였지만,
как вдруг из пальтишка выскальзывал,
갑자기 코트 아래로
미끄러져 나오더니,
рукой махал ...
한 손을 흔들고

[솔로, 합창]
и тютю!
사라져 버렸다네.

[솔로]
Юмор прятали в камеры,
유머를 감옥에 숨겼지만,
но чёрта с два удалось.
아무 소용이 없었다네.

[솔로, 합창]
Решётки и стены каменные
철창들과 돌벽들로 막힌 곳도
он проходил насквозь.
유머는 통과했다네.
Откашливаясь простужено,
감기에 걸려 기침하면서
как рядовой боец
사병처럼
шагал он частушкой–простушкой с винтовкой
소총을 메고 소박한 민요를
부르며 행군하여
на Зимний Дворец.
겨울 궁전으로 향했다네.

[솔로]
Привык он к взглядам сумрачным
유머는 침울한 시선에 익숙하지만
но это ему не вредит,
아랑곳하지 않는다네.
и сам на себя с юмором
자기 모습 또한 특유의 유머로
юмор порою глядит.
이따금 바라본다네.

[솔로]
Он вечен.
유머는 영원하리.

[합창]
Вечен.
영원하리.

[솔로]
Он ловок.
유머는 영리하네.

[합창]
Ловок.
영리하네.

[솔로]
И юрок.
민첩하네.

[합창]
И юрок.
민첩하네.

[솔로]
пройдет через всё, через всех.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사이로 지나가리니.

[솔로, 합창]
Итак, да славится юмор!
그런 유머에게 영광 있으리!
Он – мужественный человек.
유머는 용맹스러운 자라네.

3. В МАГАЗИНЕ – 상점에서

[솔로]
Кто в платке, а кто в платочке,
크고 작은 솔을 걸친 채로,
как на подвиг, как на труд,
대단한 일을 하러 가는 듯이,
в магазин поодиночке
한 명씩 상점을 향해
молча, женщины идут.
여자들이 말없이 걸어간다.

[합창]
О бидонов их бряцанье,
그들이 쥔 강통이 철컹거리며,
звон бутылок и кастрюль.
병과 냄비 소리 요란하구나.
Пахнет луком, огурцами,
양파와 오이 냄새를 풍기며,
пахнет соусом «Кабуль».
“카불” 소스 냄새도 나는구나.

[솔로]
Зябну, долго в кассу стоя,
내가 추위에 떨며 한참동안 줄 서서,
но куда движусь к ней,
계산대를 향해 가는 동안
от дыханья женщин стольких
수많은 여자의 입김으로 인해
в магазине всё теплей.
상점 안이 서서히 따뜻해진다네.
Они тихо ждут –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여자들은
боги добрые семьи,
가족의 선한 신들이며,
и в руках они сжимают
그들이 양손에 꼭 쥐 온 것은
деньги трудные свои.
고된 노동의 대가라네.

[합창]
Они тихо ждут –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여자들은
боги добрые семьи,
가족의 선한 신들이며
и в руках они сжимают
그들이 양손에 꼭 쥐 온 것은
деньги трудные свои.
고된 노동의 대가라네.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1956년 창단된 KBS교향악단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어왔으며,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026년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한국 교향악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 속의 오케스트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정명훈 지휘자가 있으며, 그는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정체성과 중장기 비전을 이끌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매년 100회 이상 공연을 펼치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과 만나고 있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초청 공연뿐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클래식의 저변을 넓혀왔다. 방송교향악단으로서 KBS TV·라디오를 통해 연주를 전국에 중계하며, 지역 음악제와 사회공헌 연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클래식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은 창단 이후 꾸준한 해외 활동을 이어오며 국제적 위상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도이치 그라모폰 (DG) 실황 음반 발매를 비롯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 등을 선보이며 세계 무대와의 교류를 더욱 확장했다. 2023년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공식 평가 5점 만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으며 국제적 존재감을 높였다. 202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회를 열어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무대를 완성했다. 이러한 국제 교류는 KBS교향악단이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를 넘어 K-클래식 세계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K-클래식 콘텐츠 허브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 KBS 전 채널을 통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클래식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개관해 고품격 콘텐츠를 제공했다. 특히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은 아시아 클래식 계열 최초로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클래식 대중화를 이끄는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창단 70주년을 맞은 2026년, KBS교향악단은 정명훈 제10대 음악감독과 함께 시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으로 ‘클래식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며 세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장 이승환
음악감독 정명훈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지현 이수연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시연
표정아 권예진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심수연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이하늘 부수석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성수 부수석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문바라니 (필립 방송 오케스트라 제2바이올린 수석)

플루트 유지홍 수석

클라리넷 조성호 수석

호른 김홍박 수석

한국예술종합학교 - 인턴십 3기

제1바이올린 권예진 김가연

제2바이올린 박선경 임정민

비올라 송경민 이태형

첼로 신소담

바순 심충현

호른 선수경

트럼펫 박찬영

트롬본 임상원

사무국

사무국장 홍석우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사원 허효정
공연지원파트 | 악기담당 | 단원 유재식 정오준 | 악보담당 |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이한신 책임 손대승 차장 김원재 유연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 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13
yyc@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진 KBS 시청자센터장
			이황선 KBS 예능센터장
			하종란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 자산운용	Prelude	곽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권정숙 김승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중윤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김희진 포크가수, DJ 박옥균 박지현 KBS 아나운서 박향미 배홍기 PKF 서원회계법인 대표이사 서성희 삼성생명 명인 양영은 KBS 보도본부 기자 유수업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스 대표 윤도식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 변호사 윤중호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규혜 한양대학교 교수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식 대표 전병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희재 노무사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재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최기수 최앤이치과 원장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원희 김효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한국산업은행 SODA		Nocturne	교보문고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재록 (주)석교디앤디 대표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황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9 BLOCK



CROWN JEWEL®

1881년 시작된 글로벌 매트리스 브랜드 쉐리의
독자적인 스프링 시스템 포스처피딕과 숙련된 장인의
수작업으로 완성된 하이엔드 럭셔리 라인업 크라운 쥬얼





KBS SYMPHONY ORCHESTRA
70TH ANNIVERSARY